

한·중 수교 25주년에 대한 양국의 반응

한현우 중국 아우라 기업자문유한공사 대표이사

주요내용

- (현황) 8월 24일,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한중 양국 정상은 축하 메시지를 교환함. 양국 외교부, 대사, 언론 등 한중 수교 25주년을 조망하는 기사와 함께 사드 문제에 대한 평가가 이어짐.
- (원인과 분석) 양국 정상과 외교부는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면서도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함.
- (전망과 시사점) 한중 관계 호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 한중 수교 25주년을 통해 확인한 양국의 입장이 향후 외교 방향에 반영되어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한중 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됨.

1. 이슈 현황

■ 8월 24일,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한중 양국 정상은 축하 메시지를 교환함.

□ 문재인 대통령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이 양국 관계를 추구한 반면, 시진핑 주석은 ‘상호신뢰’와 ‘이견 처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이하 ‘사드’) 문제에 대해 언급함.

■ 양국 외교부, 대사, 언론 등 한중 수교 25주년을 조망하는 기사와 함께 사드 문제에 대한 평가가 이어짐.

2. 원인과 분석

■ 한중 정상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의견을 같

이했지만 시진핑 중국 주석은 사드로 인한 양국 갈등에 대해 ‘한국 역할론’을 언급하며 양국 간 이견 처리에 대한 방점을 찍음.

- 문재인 대통령은 1992년 수교 이래 25년간 제반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함.
 - “양국관계 발전은 양국 정부와 국민이 긴밀한 소통과 교류, 협력을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성숙한 관계를 발전 시켜온 결과이다. 양국 관계가 이와 같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동 번영, 더 나아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지속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밝힘.
- 시진핑 주석은 한중관계를 중시한다고 언급하면서도 사드로 인한 갈등을 한국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한중 수교 25년간 양국의 공동노력 하에 양국관계가 부단히 발전해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었고, 이는 역내 평화와 발전에 적극 기여했다. 중국에게 이러한 양국관계의 결실은 소중한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한국과 함께 노력하여 양국의 이견을 타당하게 처리하고, 한중관계를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시 주석이 언급한 ‘이견’은 사드배치로 인한 양국의 갈등 국면을 지칭한 것으로, ‘이견의 타당한 처리’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됨.
- 양국 정상 간 축하 메시지 교환은 단순한 형식적 행사를 넘어선 양국의 미래 방향성에 대한 정표
 - 비록 양국 정상들의 메시지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상이하지만, 현재 마주하고 있는 일련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함.
 - 또한, 양국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발전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보여줌.
 - 하지만 한중 수교를 기념하는 자리에서까지 외교문제를 언급한 중국 측 의도를 재차 되짚어볼 필요

■ **한중 외교부도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면서도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함.**

- 한국 외교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인용하여 실질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강조함.
 - “양국이 한중관계를 중시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기반으로 당면한 현안도 지혜롭게 풀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정부는 한중수교 25주년을 맞아 한중관계를 매우 중시하는 가운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더욱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 ‘당면한 현안’은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간 갈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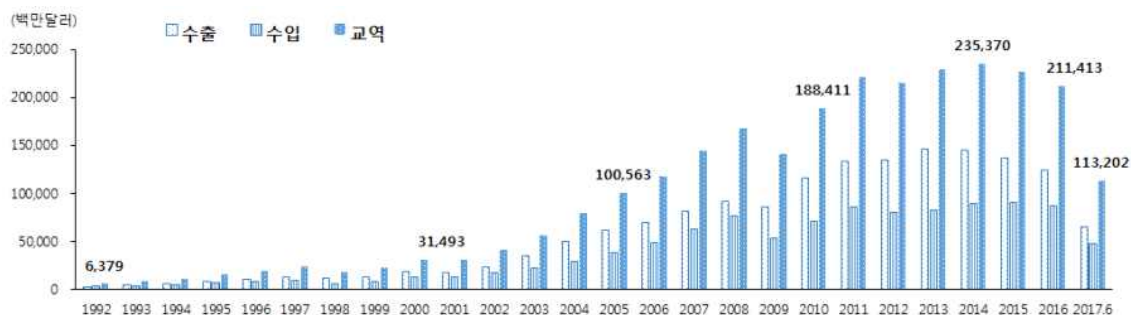
- 중국 외교부는 양국이 이뤄낸 성과를 소중히 여긴다면서도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고 일관된다고 강조함.
 -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양국이 초심을 잃지 않고 건강한 관계 발전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표명함.
 - 이어 “중대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매우 합리적이고 정당한 우려를 중시해서 한국이 건설적인 행동을 취해주기를 바란다.”며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고 일관되며,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역설함.
- 양국 외교부의 발언은 그 동안 나타났던 한중관계의 모호성을 제거하고 좀 더 적극적인 관계 발전을 위한 태도로 보임.
 - 한중수교 이래 양국이 달성한 괄목할 만한 성장에 반해 각국 정계에서는 한중관계를 재설정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 한중 외교부는 양국이 당면한 외교적 현안에 대해 재 고찰 하고 이를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아 전략적 사고와 분석을 통해 양국 관계에 대한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필요

■ 한중 수교 25주년에 대한 양국 주요 언론은 상이한 반응을 보임.

- 중국 주요 언론은 한중 수교에 관한 보도보다는 사드 문제로 인한 양국의 갈등을 강조함.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사설을 통해 사드 문제가 이번 경축 행사에 명백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함.
 - 중한 관계 회복을 위해선 ‘사드’라는 장애를 극복해야 하지만, 단기간에 양국이 전면적인 전략 파트너에서 급격히 대립 관계로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
 - 또한, 중국은 중대 문제에 대한 보복을 자제 했고 한국도 불난데 기름을 붓지 않았다(火上澆油)고 하며 그간 양국의 자제가 지금의 관계를 유지케 했다고 평가함.
- 반면, 한국 언론은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양국이 달성한 성과를 발표하는 등 사드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함.
 - 주요 언론은 23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한·중 수교 25주년 평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인용해 한중 간 교역 규모의 성장과 양국 간 지위 격상에 대해 보도함.
 - 보고서 통계에 따르면 한중 간 교역 규모는 수교 첫 해인 1992년 64억 달러에서 지난해 2114억 달러로 급증하여 25년 사이 33배 이상 늘어남.

그림1. 한·중 상품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또한, 지난 2003년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 지위를 차지한 이후 10년 넘게 같은 자리를 고수하고 있음.
- 양국 관계는 1992년 수교 당시 ‘우호협력 관계’에서 2003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됨.
- 중앙일보, 아주경제 등 신문은 전 주중 한국대사, 한중친선협회 회장 등의 언급을 인용해 한중 관계 미래 발전을 강조함.
- 권병현 전 주중대사는 최근 양국 관계에 냉기류가 흐르고 주변 정세 악화와 함께 대립각도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웃 국가로 오랜 역사를 함께하고 많은 굴곡을 극복해온 양국은 지난 25년간 협력과 공존의 단단한 토대를 쌓아왔다. 양국이 함께 이뤄낸 기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굳게 잡은 손을 놓지 않고 함께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가길 바란다.”며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바람을 밝힘.
- 이세기 한중친선협회 회장은 양국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창하는 ‘구동화이(求同化異)’의 자세로 작금의 난관을 조속히 극복해내야 한다고 강조함.

■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의 골이 양국의 성장 곡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양국이 현 문제를 회피하기보다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부각됨.

- 한중 수교 이래 투자, 인적교류, 교역 등 여러 방면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어 왔지만, 최근 사드 배치로 인한 갈등으로 2017년 상반기 한국의 對중국 투자 및 중국의 對한국 투자는 각각 46.3%, 32.3%로 감소(한국무역협회)하는 등 양국 갈등이 경제적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음.
- 또한, 동기간 방한 중국인은 작년 동기 대비 41.0% 감소(한국무역협회)함.
- 양국은 지금까지 상호보완적 관계를 통해 성장해온 만큼 이번 갈등으로 빚어진 양국의 경제적 성장 저조 현상을 좌시하지 않고, 기존 한중 관계에 입각한 새로운 개선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

3. 전망과 시사점

■ 한중 관계 호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

- 한중 FTA 강화, 對 중국 투자방식의 다각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자간 협력 강화 방안 등 실질적 대안 마련이 필요함.
- 양국이 정치적, 외교적 다툼을 경제적 협력 관계와는 분리하여 사드라는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간 동안 민간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또한, 중국과의 경제 협력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

■ 한중 수교 25주년을 통해 확인한 양국의 입장이 향후 외교 방향에 반영되어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한중 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됨.



참고문헌

- 아주경제(2017.8.25.), “[한중수교 25주년] 암초 만난 한중관계, ‘함께 이겨 찬란한 미래 열자’”
- 헤럴드경제(2017.8.23.), “[한중수교 25주년]무역규모 33배 급증…한국 일방 우위에서 경합 구도로 바뀐 경쟁지도”
- 중앙일보(2017.08.16.), [한·중 수교 25주년]코드네임 '동해' 권병현 전 대사 “양국 관계 숙명적, 사드가 막는 것도 한계”
- 北京周报(2017.8.31.), “中韩建交25年 期待三十而立”
- 界面(2017.8.24.), “建交25周年 中韩媒体为两国关系把脉建言”
- 环球时报(2017.08.24.), “社评：不让“萨德”成永久拐点，中韩应如何做”

💡 알립니다

- CSF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발간하고 있으며,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릅니다.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